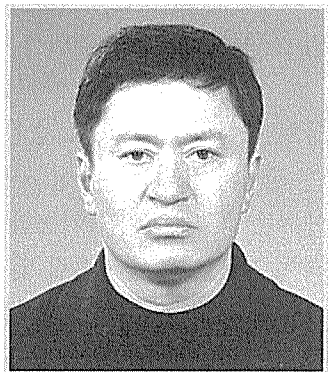


유기축산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인 호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

최근 들어서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의 김 위찬 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가 공동 저술한 성공을 위한 미래전략인 블루오션 전략(Blue Ocean Strategy)이 국내에서도 이 전략을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베스트셀러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9월 20일 MBC 심야스페셜 프로를 통해서 실증사례가 다시 한번 상세히 소개된 바 있다.

이 전략의 기본적인 핵심이 기존 시장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저비용 투자로 고부가가치의 창출로 경쟁자 없는 새 시장공간의 창출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시장에서 갈수록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는 레드오션 전략(Red Ocean Strategy)단계에 머물고 있는 축산관련업계 특히 장기불황으로 고전을 하고 있는 동물약품업계 종사자들에게 미래의 생존과 직결된 분위기 조성에 무언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EU국가에서는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서나 프랑스, 독일 및 네덜란드 등에서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 전시회 등을 통해서 EU국가에서 성장촉진용 항생물질(AGPs)의 전면금지로 인한 후유증의 극복을 비롯한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체험한 뒤에 공

개적으로 제시하는 귀중한 사실들을 일본에서는 발 빠르게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를 잘 분석해서 자국의 사정에 부합되도록 활용하여 EU국가의 초창기 과정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각종 축산전문지를 통해서 계속 제공함과 동시에 자국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및 대만에 비해 항균성물질 관련제도와 재평가 과정의 실시가 미비해 인수공용 항균성물질의 사용이 이들 국가들보다 월등히 많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국제정서는 물론이고 국내정서상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2005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도 매년 100톤 이상 씩 항균성물질의 사용량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균성물질의 감축정책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25종으로 항균성물질의 사용이 대폭 감축된 금년의 통계가 올해 말에 공식적으로 제시된다면 사용감소량의 폭은 갈수록 증대되어 언젠가는 외관상으로 일본의 통계수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균성물질을 25종으로 감축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이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본인이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내성의 발생이 극에 달한 것으로 공인되고 있는 페니실린을 비롯한 인수공용 항생물질의 사료에서의 계속적인 사용허가와 필드에서 2005년 9월에 미국 FDA CVM에 의해 공식적으로 양계에서의 사용이 금지된 엔노플록사신(Enrofloxine)과 인체

용 씨프로플록사신(Ciprofloxine)을 비롯한 신·구 퀴놀론제의 천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인수(人獸)공용 항생물질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제적인 정세에도 위배되는 국내용 처사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기가 부끄러운 일이고, 소비자단체와 의료계의 안전축산물 공급을 둘러싼 공세에도 적절히 대응할 명분이 약화돼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또한, 싸이로마진의 사료첨가금지로 올해와 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예년에 비해 파리발생의 증가로 인한 비용증가와 불편함 등으로 양계농가들이 생산현장에서의 고충이 가중된 것은 물론이 제제의 용법, 용량 상 사료공장이 아닌 농장에서는 정밀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성발생의 증가에 대한 증거수집 및 확인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을 과연 양계농가들은 양질의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봐야 할 일이다.

최근 들어서 항생물질에 대한 규제가 국·내외적으로 가중되고 소비자들의 웰빙 열풍이 불면서 그 대안으로 항생물질 대체제와 무 항생물질 사용에 의한 유기축산이 국내 일부 대학과 양돈조합에서 농림부의 연구비 지원과 시범사업의 추진과 동시에 9월 6일 한국 유기축산연구회 창립 기념 세미나가 축산연구소에서 개최되어 향후의 활약을 기대케 하고 있다.

본인은 보고를 통해서 유기축산 연구회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처음에 EU의 영향을 받아 정책을 추진하려던 일본의 경우에는 항균성물질의 전면 사용 중지로 인한 자국의 손실액이 거의 1조원에 이른다는 수치가

공식적으로 제시되자(鷄卵肉 情報, 2004) 일본 정부가 부담을 느껴 자국의 축산정책을 전면 재조정하여 시행에 옮기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국내에서 소비자들의 가격부담 등으로 참여농가들의 수익성의 안정적 확보가 불투명해 정착과정까지는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유기축산에 대해 유기축산연구회 참여 인사들은 현실상황을 보다 더 냉철히 직시하여 국내에서 양계농가들이 항생물질과 항콕시딕제를 전면금지 시에 현재와 같은 항생물질 및 항콕시딕제의 사용 시에 비해서 어떠한 손익계산서의 변화가 생기는 지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인 분석을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먼저 제시하여 양계농가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순리다.

또한, 유기축산 연구회 참여 인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EU국가에서 괴사성 장염(NE)에 강한 감수성을 나타내는 항생물질의 일방적인 사용금지로 인한 괴사성 장염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로(AVIAN PATHOLOGY, 2005) 이 질병의 방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유기축산 관계자들도 질병의 통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인 하나라는 데에 동의를 나타내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항생물질의 사료첨가와 클리닝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이면 괴사성 장염이 발생하는 것이 양계담당 임상수의사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만약 항생물질의 무사용으로 이 질병의 발생이 EU국가에서 보듯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슨 과학적 증거로 양계농가들에게 검증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해법을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제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에 닭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양계농가에서는 현재도 버어지니아마이신(VM)을 비롯한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을 계속 사용해서 육계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정에서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계의 생산성 관련 지표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육계농가들은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EU의 육계농가들은 이미 이를 먼저 체험하면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외국 학자들의 증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예방주의 원칙을 채택한 EU를 모델로 항생물질 무 첨가에 의한 유기축산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육계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장의 중심에 서서 깊은 통찰을 한 뒤에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이제 초보의 걸음마를 내딛은 국내의 유기축산이 블루오션 전략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되어 양계농가들에게 기존의 소비자 가격보다 예상대로 최소한 2배 이상을 받아 수익성이 보장되어 웰빙의 실현에 기여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갈지, 과거에 양돈의 톱밥발효 돈사의 예에서 보듯이 아무런 소득 없이 마감할는지, 현재 내수경기의 침체로 긴축 살림을 살아가야 하는 도시 소비자들의 성향으로 인해 일부 학자들의 연구수준에서 머물는지 쉽게 장담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축산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도 냉철한 판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양계**